

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(GMD) 활용사업, 확대·개선된 모습으로 중소중견수출 도약 견인

-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(GMD) 활용사업이 올해는 더욱 확대·개선된 모습으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도약을 견인할 전망이다.

* ('16) 46개 GMD가 280개 중소기업 지원 → ('17) 70개 GMD가 550개 기업 지원

* 초기중견기업 참여허용, 유망·강소기업 매칭 확대, GMD·매칭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

- 중소기업청(청장 주영섭)은 예산 120억원을 투입, 4대 특수분야*에서 70개 전문 GMD를 선발하여 총 550개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* 신흥시장, 전자상거래, 해외B2G, 해외유통전문회사

- GMD 활용사업은 전문무역상사 등 민간 수출전문기업을 GMD*로 선정하고, GMD가 직접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발굴·매칭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

* GMD(Global Market Developer) : 신시장·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, 통관·배송,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

- 자금·R&D·마케팅·인력 등 정책지원 수단과 GMD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민·관 협업을 통한 수출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지난해 시범 도입되어 46개 GMD가 28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.

- 금년에는 70개 GMD를 선발, 총 550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으로, 지난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아래 사항들이 개선·보강되었다.

[GMD의 참여 인센티브 제고]

- 수출유망·강소기업 매칭 확대 : “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” 등

역량 있는 유망·강소기업 발굴·매칭 적극 장려

- 유통전문회사 GMD 유형 신설 : 현지 보유 자사 유통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타 유통네트워크 발굴·연계를 통한 지원 트랙 신설
- GMD 금융지원 확대 :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에서 GMD전용 자금 300억원 마련 및 용자한도 30억으로 우대(일반기업 20억원)

[대상기업 범위 확대]

- 초기중견기업 매칭 허용 :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
- 동 사업의 신청기간은 '17년 2월 1일(수)부터 2월 28일(화)까지이며,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(1.26)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
 - 2월 6일(월)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전문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, 관심이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외시장과 이홍열 주무관(☎ 042-481-449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GMD 사업개요

□ 기본 구조

- 사업목적 : 민간 수출전문기업(GMD)*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소과정 (수출준비→해외영업→수출)을 밀착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성과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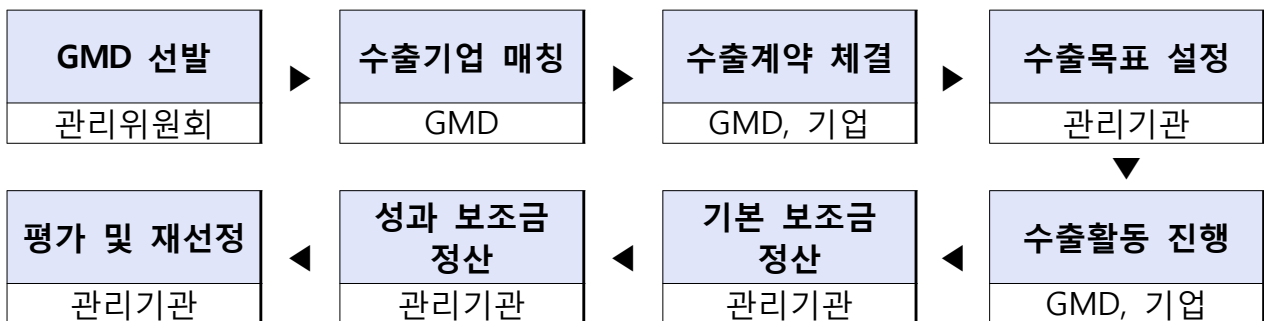
* GMD(Global Market Developer) 신시장·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, 통관·배송,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통합 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

○ 사업규모

- 예산규모 : '17년 예산 120억원
- 지원규모 : 중소기업 550개사 (GMD 선발 70여개사)

○ 사업기간 : 2년

□ 사업 절차



□ 추진체계

- (관리기관) 전반적 사업관리 및 운영, 예산집행 등 수행하기 위해 '중소기업 진흥공단'을 관리기관으로 지정
- (자문관리위원회) 기업간 분쟁, 운영지침 위반 등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고, 시장개척 계획, 수출목표 등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

* 중기청, 중진공, 무역협회, 대한상사중재원, 학계, 법조계 등으로 구성